

원효의 화쟁사상 관점에서 본 현대 한국인의 의사소통관

김 정 탁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경 열

(방송위원회)

1. 서언

우리는 현재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예전에는 매체기술의 발전이 미약한 관계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 속에서 의사소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매체에의 접근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의사소통 양식이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게 되었다. 한 예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있는 그리운 친구나 가족과 화상으로 서로를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어렸을 때 헤어진 친구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수용자는 제작자의 의도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해독하고, 발송자나 제작자에게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때로는 제작자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수용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급속도로 여론을 확산하고 형성하는 능력까지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기술의 발달이 원활한 의사소통까지는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사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의사소통기술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보면 그 폐해의 심각성에 놀라게 된다. 근거 없는 비방 글 또는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인한 가족간의 대화가 단절된 모습

을 보여주는 공익광고가 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글쓰기는 바른 언어를 파괴하고 새로운 인터넷 언어를 창조함으로써 계층간, 세대간, 가족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의사소통을 파편적이고 왜곡되고 단절적이며 자기중심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의사소통 기술의 발전은 여러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족간, 지역간, 계층간, 민족간, 국가간, 세대간의 갈등과 간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인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 방법은 없을까? 누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각성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대안이 없는 것이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데리다¹⁾가 지적한대로, 서양의 현대 철학은 현대철학은 이성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이항대립의 우를 범하였다. 서양 철학은 모두 정신/육체, 선/악, 주관/객관, 내면/외면 등 이분법에 바탕을 둔 사유이자 어느 한쪽에 우월성을 부여한 대립적 사유체계이다. 이러한 서양적 이항대립적 사유체계가 지난 세기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결과 갈등과 대립, 전쟁, 불안의 근본 원인이 되었으며 우리도 또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을 넘어 상생과 새로운 매체에 맞는 패러다임은 화쟁의 사유체계이다. 왜냐하면 화쟁은 이항대립의 한계를 넘어선 사유체계이기 때문이다. 1,5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원효가 주장한 화쟁의 사유체계가 매체기술의 발전이 눈부신 오늘날 우리 안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효의 화쟁사상이 지니는 불교사상적 구조를 검토하기 위하여 먼저 불교의 의사소통관과 원효의 저술 가운데 산재해있는 관련문구를 종합하여 그의 의사소통관과 화쟁의 사유체계를 정리해보고 현대 한국인이 안고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자한다.

2. 원효의 생애와 업적

1) Jacques Derrida, *Positions*, tr.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pp56-57)

원효(617-686)는 宋高僧傳 과 三國遺事에 의하면 성이 설씨로 진평왕 39년에 출생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컸으며 배우려고 해도 받들 스승이 없었다고 한다.²⁾ 확실한 연대기록은 없으나 일찍이 출가³⁾하여 승려가 되어 三藏(經律論)을 섭렵함과 함께 精義를 체득하였지만 스스로 小性居士라고 칭하고 無尋歌를 부르며, 수많은 촌락을 찾아다니며 불법을 전하였다.⁴⁾

원효는 대략 87종 18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저서를 남겼다.⁵⁾ 그러나 그의 저서의 대부분이 산실되었고 이중 현재 남아있는 그의 저서는 십분의 일도 안 되는 20부 22권에 불과하고 하다.⁶⁾ 이처럼 방대한 저술을 이룩하였다는 것은 원효가 탁월한 사상성과 방대한 학식을 겸비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원효는 한국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교 철학자요 저술가요 대중 교화가였다. 그의 명저 “대승기신론소”와 ‘금강삼매경론’은 그 당시 동방문화의 중심지인 중국 당나라까지 전해져서 혜원, 법장 등 그 곳 고승대덕들에게 엄청난 과문과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웃 일본 땅에서는 원효는 학문적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을 비는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추앙받았다. 일본 정토종의 開山祖 法然은 “游心安樂道”를 그의 注衣書로 하였고 일본의 국보 ‘화엄연기’에는 원효와 의상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일본 고산사에서는 원효와 의상을 大明神으로 황포에 그려서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숭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원효는 그의 후기 저작인 ‘십문화쟁론’을 통해 그 때까지의 모든 불교이론의 이성들을 일미의 불법대해로 귀일시켜 소위 말하는 모든 종파를 초월한 通佛敎 이론을 제창하였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원효는 신라 시대에는 신라 十聖 중의 한사람으로 흥륜사의 金堂안에 봉안되었다.⁷⁾

그는 또한 화쟁국사라고 불리는데 이는 고려 숙종6년(1101년) 義天의 천거로 ‘和諍國師’라는 시호를 내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김부식(1075-1151)의 ‘화쟁국사 영찬’과 명종20년(1190년) 입석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황사화쟁국사비’에서 화쟁국사라는 칭호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같이 각종 사료속에서 원효를 화쟁국사라고 부른 흔적이 나타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그의 저서중의 하나인 십문

2) 大正歲 49, p1006, 眞平王三十九年대중십삼년축세야, 생내

3) 宋高僧傳 권4, 원효전

4) 이영자, 원효의 회통사상 연구, 19면

5) 원효학연구, 4집, 원효학회, 1999, 228면 참조

6) 이영자, 원효의 회통사상 연구, 20면

7) 박쌍주, 원효설화의 상징적 의미, 한국교육철학회, 1997, 141-142면)

화쟁론의 영향력 때문이다.⁸⁾

원효가 화쟁에 대하여 그토록 중요성을 강조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효가 태어나 수학하고 교화를 펼친 시기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전후기로 오랜 전란으로 민심이 피폐하고 갈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당시 원효가 고민하였던 신라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갈등과 고통의 소멸이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화쟁이었다. 때문에 원효의 사상적 궤적은 각종 갈등을 화회시키기 위한 화쟁의 행적이었다. 십문화쟁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열 가지 주제 혹은 현존하는 세 가지 주제가 당시 신라 사회 속에서 실제로 논쟁을 불러일으켜 종파간의 갈등이 극심하였다는 정황의 사실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7세기 동아시아 불교계는 신·구영불교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화종과 법상종의 갈등, 삼종론과 법상종의 갈등,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의 갈등의 세 가지 정도로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⁹⁾ 왜냐하면 불교교리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難解하고 복잡할 뿐 아니라, 교설과 교설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3. 원효의 화쟁사상

1) 불교의 言語疏通觀

원시불교의 의사소통관은 言語道斷과 不立文字로 축약할 수 있다. 이는 언어가 불교적 진실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언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어사용 및 언어용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다만 비록 언어가 불교적 진실을 왜곡한다 하더라도 언어가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하면 불교적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관철학적 관점에서는 현존하는 실체보다는 움직이고 있는 생성을 중요시함으

8) 김도공,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24집, 2005, 96-97쪽

9) 남동신, '원효의 대중교화와 사상체계,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156면), 김도공,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24집, 2005, 98-99쪽)

로써 무상변전을 강조한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라(색즉시공 공즉시색)’가 이를 말한다. 따라서 불가에서는 현상과 실재의 이분법적 사고를 부정하면서 종합적인 사고를 강조한다. 이것 역시 언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⁰⁾

유식철학적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가 욕망을 낳고, 그 욕망이 인식을 낳았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곧 주관과 대상이라는 인식의 두 세계인데 여기서 ‘유식’ 본원의 고요가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본다. 즉 주관과 대상이 성립하면서 생명윤회의 영원한 바퀴가 구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맹목적 의지가 고요한 근원의 에너지를 작용시켜 주제, 혹은 자아를 형성시키고, 곧 그 짝인 대상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결합하여 결국 인식을 구성하고, 그 결과로서 언어와 사유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인식이란 분절될 세계인 썸이다. 이를 경계라고 부르는데 그 경계는 의지에 의한 허구이고, 환상일 따름이다. 이미지의 세계는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것이다.¹¹⁾

불가의 유식론은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면 기의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양이 기호학이 언어가 ‘기표’와 ‘기의’의 조합이라고 주장하지만 불가에서는 오직 ‘기의’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를 결국 불립문자로 표현했다. 즉 문자로서 뜻을 세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는 ‘기표’ 혹은 일종의 감각기관의 연장에 해당하는 문자로서는 완전한 ‘기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¹²⁾

세속에서 사용하는 일상언어는 우선 어떤 대상에 대해 고정성과 동일성을 부여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는 마치 유독적 존재에게 고정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순이라고 보았다. 이를 기호학적으로 설명하면 ‘고정된’ 기표가 ‘유동적인’ 기의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으로서의 존재를 소유가능한 형태로 변질시켜 유동적 존재인 인간에게 고정 불변적 자아개념을 부여해서 결국 삶에 집착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했다. 불교에서는 이 같은 일상언어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탁 263) 이상이 원시불교, 중관철학과 유식철학적 기본사유에 입각한 언어소통관의 대강이다.

2) 원효의 의사소통관

10) 김정탁, 예와 례, 2004, 242면

11) 한형조, 2000, 49면, 김정탁, 예와 례, 2004, 258면

12) 김정탁, 예와 례, 2004, 241면

원효의 의사소통사상을 말할 때 대표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和諍을 든다. ‘一心’이나 ‘一乘’같은 말도 원효가 애용하지만 이들은 이미 인도불교와 중국불교에서 발전되고 사용된 것들에 속한다. 하지만 화쟁은 원효의 의사소통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삼을 만하게 원효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불교는 산발적으로 번역된 漢譯經典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會通的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다 일정한 個別的 經典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 경전이나 논서의 주장을 종파적으로 굳혀가는 傾向을 나타냈다. 그런 가운데서 유독 원효만이 이른바 대·소승의 經典을 다 버리지 않고 그 가치질서를 매기며, 會通的으로 이해하는 一乘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宗派的 偏狹性和 宗派的 鬪爭을 배격해냈다. 이것이 원효의 화쟁사상의 發露이다.¹³⁾

원효는 언어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 회의만 한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언어를 부정해도 그 부정하는 방식 또한 언어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의 의사소통관은 ‘대승기신론소’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離言) 측면에서의 진여와 ‘말로 표현할 수 있는’(依言) 진여로 갈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는 언어를 떠난 어떠한 개념규정이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일체의 법은 설할 수도 없고 생각할수도 없기 때문에 ‘진여’라고 이름 붙인다고 말한다. 언어를 거부하지만 거부하는 것도 언어를 방편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즉’ 곧이 말을 하자니(가설:upacara) ‘진여’다 ‘一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할 수 없이(不得已) 이름 붙이자니’, ‘억지로 부르자니(強號) ‘일심’이다. ‘진여’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를 방편으로 하여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의 통찰위에서 언어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간략히 요약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 즉 궁극적 진리는 너무도 깊어 우리의 이성이나 언어기호를 통하여 헤아릴 수 없다. 즉 문어는 세계를 왜곡하지만, 우리는 의어를 통해 궁극적 실체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여 세계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기호가

13) 이기영,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 진단학보, vol. 78, p28-29, 1994

가진 지시적 의미를 받아들인 다음 이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시적 의미를 넘어서는 뜻을 해야한다면 불가사의의 한 자락이라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원효의 언어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도흠, 포스트모더니즘 문예이론과 원효화쟁이 비교연구, 비교한국학, 2004, 143-144면)

이와같이 상술한 불교적 언어이해의 세 측면은 원효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골격을 이루고 있다. 원효는 이를 토대로 하면서 동시에 그의 훌륭한 會通的 思惟 및 논리를 언어이해도에 적용시켜 깊이 있고도 적극적인 의사소통관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和諍思想의 의미와 특징

화쟁사상은 원효가 지은 방대한 저술체계와 그 사상의 중형무진함에 압도되어, 원효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말하여, 이를 무조건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화쟁사상은 원효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상황 속에서 충분히 성숙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불교의 본질과 동양사상의 본질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김도공, 원효의 화쟁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장자 제물론의 영향, 보조사상 24집, 2005, 127면) 다만 원효가 일찍이 이 개념을 경론에서 뽑아내서 누구보다도 이것을 더욱 중시하고 자주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김영호, 원효사상의 독특성을 찾아서, 한국종교사연구, 2000, 282면). 반면, 화쟁이 원효의 전유개념은 아니지만 그가 처음으로 화쟁이라고 명명하고 누구보다도 포괄적이고 철저하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보급했다는 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효의 독특한 언어소통관이라고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원효는 화쟁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그가 이에 대해서도 會通의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 어떤 틀에 넣어서 화쟁을 말하기보다 언설을 넘어서는 대원리로 화쟁을 설정하고 이 논법에 따라 상상하고 사유하였으며 해석하였다. 그러기에 화쟁의 논법은 그가 지은 저서를 일관되게 지배하며, 특히 각 저서의 대의는 화쟁의 논쟁에 따른 경과 논의 해석으로 서설을 삼은 것이다. 때문에 화쟁의 개념을 알려면 축자적인 해석에 얽매이지 않고 각 저서를 통하여 추론하여야 한다.¹⁴⁾

원효가 이해한 화쟁의 철학적 기반은 일승이다. 그 일승은 삼승에 대립되는 일승이 아니라 삼승을 끌어안은 일승이다. 즉 일승은 결국 우리들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정법은 결국 마음을 바로 다스리고, 마음을 바로 써서 말과 일이 잘 다스려지고, 바르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은 단지 사람의 마음 심리적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宇宙自然의 秩序와 조화의 원동력까지도 의미하고 있다. 그 마음은 이치로서 원인으로서는, 공한 본성이며, 그 자체가 이미 도리로서 법으로서 완벽한 것이다. 15)

즉 한 분야의 이론만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아우르며 그것들 각각에 중요성을 부여하여 조화롭게 하는 것이 元曉의 정신이다. 원효는 여러 다양한 이론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조화시켜 부처의 올바른 진리인 一心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和諍이며 원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또한 유무 진속을 둘로 보지 않으면서 하나를 고집하지도 않는 원효의 一心의 경지에 되돌아가게 하는 모든 불교적 수행이 다 화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認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탐구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통찰력, 理와 情, 지적능력, 지각능력, 이해력 등이 총망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결국 화쟁은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화쟁은 즉 언어를 통해 다툼을 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쟁의 사유체계는 원효가 어떠한 의사소통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3. 화쟁의 사유체계

화쟁이 원효의 특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체계로 쟁론을 조화시키려 했는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현존하는 그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견해에서 출발한 원효의 화쟁의 사유체계는 크게 경전에 대한 해박한 이해에 기반을 둔 다원적 사유, 불일불이 논법, 절대와 상대의 조화로운 사유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4)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106면

15) 이기영, '원효사상의 특징과 의의', 진단학보, vol. 78, p30, 1994

1) 다원적 사유

원효에 의하면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이유는 번뇌에 빠져있기 때문이며, 번뇌에 빠져있어 단정을 하게 되고, 자기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서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번뇌를 없애서 단정하는 바가 없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和諍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쟁론을 조화시키려 하는 것이 원효의 和諍이므로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和諍이 언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언어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시킨다면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언어는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므로 그것 자체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면을 집착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원효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옳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열반종요」¹⁶⁾에서는 열반이 쉼하다 또는 쉼하지 않다고 하는 두 가지 주장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됨을 주장하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두 그르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진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집착없이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면 옳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무조건 다 맞는 것은 아니고 근거가 있을 때에 그러하며, 그 근거를 經典에서 찾고 있다.

원효에 의하면 무릇 진리에는 방향성도 고정성도 없으며 역동적이며 숨쉬는 유기체와 같이 꿈틀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언어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진리 자체는 아니다. 원효는 먼저 어떤 표현이든지 상대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表員의 「華嚴經文義要決問答」¹⁷⁾, 『般若宗要』¹⁸⁾와 『游心安樂道』¹⁹⁾에 인용된 원효의 말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성립하는 개념들에 절대적 집착을 해서는 안 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원효는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성립함을 지적해서, 한쪽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 대한 집착도 버리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의도하는 바를 받아들이면 되는

16) 「涅槃宗要」, 韓佛 I. p. 529 a.

問 如是二說何得何失 答 若如言取二說皆失 互相異諍失佛意故 若非定執二說俱得 法門無碍不相妨故.

17) 表員, 華嚴經文義要決問答 券二, 韓佛 II, 367면 b.

18) 般若宗要, 韓佛 I, 524면, a.

19) 游心安樂道, 韓佛 I, 596면c, 590면a

것이지 언어 자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는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 ‘일체의 다른 교의가 모두 다 불교의 뜻이요, 백가의 설이 옳지않음이 없으며, 팔만의 법문이 모두이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교의 백가의설이 다 불교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견해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갈대구멍으로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이 좁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²⁰⁾

2) 不二不二 논법

화쟁은 긍정하면서도 스스로 부정함이 없고 부정하면서도 스스로 긍정하지 않음이 없이 하나도 둘도 아니라는 불일불이의 사유체계를 갖는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공이라며 부정하기만 하는 중관학과와 모든 것이 식이라며 긍정하기만 하는 유식학을 통합한다. 또한 주체와 객체, 空과 色, 眞과 俗, 理와 事, 본질과 현상, 이상과 현실이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이루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화쟁은 차이와 관계를 통하여 주체와 타자를 대립시키지도 분별시키지도 않는다. 양자를 융합하되 하나로 만들지도 않으며 중간도 아니다. 스스로 본질은 없고 다른 것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선은 선이 아닌 것과 차이를 통하여 선을 드러내고, 선이 아닌 것은 선과 차이를 통하여 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효는 씨와 열매의 비유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열매와 씨는 서로 같지 않으니 하나의 개체라 할 수 없으나 씨가 자라 씨의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는 열매가 되고, 열매는 열매의 유전적 특성을 갖는 씨를 갖고 있으니 둘이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씨와 열매가 홀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홀로는 空하지만 이것이 空이면 저것은 有이다. 열매는 씨 없이 존재할 수 없으니 공하지만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면 씨를 낸다. 씨는 스스로 공하나 썩어 열매를 맺으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열매와 씨의 관계처럼 세계의 실체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하나는 하나가 아님이 있어 하나라고 하고 하나가 아님 또한 하나와 차이를 통하여 하나가 아님이다.

20) 보살계본지범요기, 한국불교전서 1, 583면 상, 김도공 101면

여기서 **공**은 허무도 절대 부정도 아니다. 공은 어떤 무엇도 아니므로 무엇인가와 반대되지도 모순도 되지 않는다. 이것이 공이면 저것은 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事象이 공이면 이 事象은 차이를 통하여 다른 사상의 의미를 드러내니 이 사상은 존재한다. 세계는 서로 다름과 차이를 통하여 의미를 드러내며, 같은 것이 다른 것의 다른 것이며 다른 것은 또 같은 것이다. 세계는 스스로는 본질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것과의 차이를 통하여 드러낸다. 세계는 변증법적 통일이 아니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중부정을 총해 드러나는 것이며, 씨가 썩어야 싹과 잎을 내듯 **공**은 有의 바탕인 것이다.

이를 모르고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것이나 유하다고 하는 것이나 모두 편견과 집착일 뿐이다. 따라서 화쟁의 사유체계를 통하여 유와 무, 이것과 저것, 생과 사는 하나로 융섭되는 것이며, 이항대립을 해체하고 둘 사이의 조화근거와 체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이도흙,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134-135면)

3) 절대와 상대의 조화

세 번째 화쟁의 방법으로 원효의 동의도 앎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법을 들 수 있다. 앞서 논의한 긍정·부정의 자재가 이론적인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라면 이것은 화자의 태도 측면에서 논의한 것이다.

원효는 『금강삼매경』 21)에서 동의도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진리의 실상을 직시하되 상황의 맥락이나 수신자의 근기에 맞게 順不順의 논법을 통하여 전하면 참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므로 그 견해에 담겨있는 허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반대하지 않으므로 그 견해에 담겨있는 허위를 잃지도 않는다. 반대하지 않으므로 그 견해에 담긴 근본 취지와 목적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동조하지 않으므로 그 견해의 허위를 속아내고 그에 담긴 도리를 제대로 받아들여 견해의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21) 「金剛三昧經論」入實際品, 韓佛 I. p. 638 a.

若諸異見諍論興時 若同有見而說 則異空見 若同空執而說 則異有執 所同所異 彌興其諍 又復兩同彼二則自內相諍 若異彼二則與二相諍 是故非同非異而說 非同者 如言而取 皆不許故 非異者 得意而言 無不許故 由非異故 不違彼情 由非同故 不違道理 於情於理 相望不違.

원효는 이를 문장의 내용 뿐 아니라 문체의 형식차원에서도 실행하였다. 『금강삼매경론』의 대의를 보면 앞에서 긍정하는가 하면 뒤에서 이를 부정하고 앞에서 부정하는가하면 뒤에서 이를 긍정하는 방편을 썼다. 이렇듯 화쟁은 한 무리를 이루나 빼앗지 않는 논법이자 서로 다른 것을 통해서 義가 서로 같은 것에 맞추는 회통의 사유체계이다. 즉 여러 견해나 말씀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一味의 바다로 회통시키는 것이다.

4. 화재사상의 시사점

경험론, 관념론과 변증법 등 서구의 철학은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정, 주체와 객체, 내명과 외면의 이항대립 사유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항대립의 사유체계에서 주체는 객체를 주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고, 이성은 합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과 욕망을 최대한으로 절제시키고 억압하였으며, 정신적인 면을 육체적인 면보다 신성시 하였으며, 자연은 인간의 정복대상이었고, 서양의 문명은 다른 문명을 야만으로 규정하고 개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그 결과 인류는 환경위기, 구조적 갈등과 폭력의 정당화, 도덕적 타락 등의 모순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의사소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소통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은 주로 얼굴을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기껏해야 직접 글을 쓰거나 하는 정도였다. 그 결과 시간과 공간적 제한은 있었으나 언어와 글을 통하여 서로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고 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언어와 글로 표현이 어려운 부분은 온갖 몸동작을 통하여 전달하였다. 그 결과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의사소통은 어려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금세기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매체기술의 발전은 대중매체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당시 전 세계의 사유체계를 이끌었던 서양철학의 이항대립의 개념은 매체에도 적용되어 콘텐츠 제작자와 전달자는 매체수용자를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의사소통 매체의 다양화를 가져온 반면

이항대립관계는 더욱 심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은 쌍방향 매체를 소개하였으며 수용자는 소극적인 수용행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콘텐츠에 관여하고 심지어 제작·유포·확산 시키는 행위자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 반해 부정적인 면도 또한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원활과 함께 가족간, 지역간, 조직간, 세대간, 계층간, 국가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그 한 예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적인 비방의 글은 당사자들을 곤혹하게 만들고, 특히 연예인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펜클럽과 안티펜클럽을 동원한 상호비방이 극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 정치적으로는 폭로성 글들이 인터넷에 떠돌아 당사자가 억울하게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쟁론화 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하며, 근거 없는 정보를 날조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소통을 생각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에 본 연구자는 화쟁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화쟁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화쟁의 목표는 결국 궁극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의 사유체계의 특징은 궁극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첫째, 자기의 주장에 집착하지 말고, 둘째, 화자의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언어가 갖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며, 셋째, 모든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유기적이라는 점을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하여 인지되는 해박하고 편협하지 않은 지식, 도리와 정에 어긋남이 없는 판단력과 분석력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원효가 주장하였던 궁극적 진리는 불교적 차원의 것이었다. 그러나 원효의 사유체계는 불교적 진리에 도달하는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적 의사소통에 적용되는 사유체계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쟁론을 벌이는 것은 결국 언어의 한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여, 언어가 갖고 있는 뜻보다는 언어 자체에 의미를 두어 찬성과 반대, 동의와 이의를 제기하여 각 주장이 갖고 있는 진실과 허위를 가려내지 못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 쟁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이슈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 지적 능력, 인식, 의지 등이 부족한 점도 있다.

이렇듯 화쟁이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의사소통 문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유체계로서 1,500여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도 화쟁은 심오한 불교 철학이나 사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 언어소통의 살아있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